

# 한일 상대문학에 나타난 달 이미지 비교 연구\*

-향가와 일본의 『萬葉集』을 중심으로-

이 연 속\*\*

## 차 례

- |                        |                   |
|------------------------|-------------------|
| 1. 서론                  | 4. 한일 양국의 달 신앙 차이 |
| 2.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    | 5. 결론             |
| 3. 일본 『萬葉集』에 나타난 달 이미지 |                   |

## 1. 서론

어두운 밤에 높이 떠서 만물을 흰히 비추는 달은 인간에게 아름다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달의 차고 이지러짐은 농경시대에 시간적 리듬을 인간에게 부여하여 식물의 성장을 달력에 맞추어 함께 공감하게 하였으며 생산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한편 달의 이지러짐은 인간의 죽음을 연상하게 하여 무상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차오르는 까닭에 영원불사한 신비의 달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인간은 달에서 이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얻고 있었는데, 각국의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달 이미지는 그러한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

\* 이 논문은 2001년도 동의대학교 교내 연구비에 의해 조성되었음.

\*\* 동의대학교 교수.

면서도 어느 한쪽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있어 흥미롭다. 이것은 역사 풍토 속에서 변화되어간 그 나라 문화의 특성과 관련되는 문제일 것이다. 필자는 신라의 달 사상을 논하면서 각국의 달 이미지의 차이를 논급하고 신라인의 달 신앙은 신라 궁궐 형성의 기반 사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라인들이 생각하는 달 사상에 바탕한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들인 화랑사상에도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논한 바<sup>1)</sup>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라인들의 달 사상이 구체적인 향가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기로 하되 일본 상대 시가집인 『萬葉集』의 작품과의 비교를 통해 양국의 상대 시가문학 속에 나타난 달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달을 문학적 소재로 사용하고 있지만 문학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는 왜 차이가 나는지를 양국의 문화 사상적인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인의 자연관 및 문화사상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2.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

현전하는 신라 향가는 14수이다. 14수 중 <擘星歌>·<願往生歌>·<怨歌>·<讚耆婆郎歌>·<處容歌>의 5작품과 고려시대 균여의 향가 <講轉法輪歌> 속에 ‘달’이 보인다. 여기서는 이 작품들에 한정하여 달 이미지가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맥 속에 드러난 표면의 일차적 표현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밝기

처용가(東京 밝은 달에)

1) 이연숙, 「신라인의 달신앙」, 『한국시가문학』 (한국시가학회, 2001).

청전법륜가(覺月 밝은 가을 밤에)

② 운행

혜성가(三花郎의 오름 보시을 듣고 달도 부지런히 떠가는데)

원왕생가(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서서)

찬기파랑가(우러러보니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간 언저리에)

원가(물에 비친 달 그림자 진 옛 못엿 흐르는 물결엿 모래인양 모습  
이사 바라나 세상 모두 잃은 처지여라)

위의 작품들을 보면 달에 대한 표현은 달의 밝기, 운행에 관한 표현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백제의 노래 <정읍사>에서처럼 ‘높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보이지 않지만, ‘밝은’이라는 표현의 이면에는 이미 ‘높이’와 ‘둥근’ 형태까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보면 향가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는 밝게, 높게 뜬, 둥근 만월이 공간적 운동을 해 가는 역동성이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작자의 시선은 모두 천상으로 향해 있으며, 달을 바라볼 때에 달과 작자 사이에는 아무런 개입되는 것이 없이, 직접 둥근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작자와 달의 직접적인 교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원가>에서는 ‘물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하여 시선이 위로가 아니라 아래로 향하고 있으며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노래가 왕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으므로 시선은 광명한 달 쪽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너 어찌 잊으랴” 하였을 때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러렀으나 지금은 그 약속을 잊고 자신을 버린 상태이므로 직접 우러르는 것이 아니라 못에 비친 그림자만 바라볼 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작자의 시선은 자신의 현재의 처지로 인해, 아래로 향하고 있을 뿐, 이것은 뒤집으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달은 위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는 작자와 달 사이에 매체가 개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돈호법으로 부르기도 하고, 높고 광명한 달을 우러르며 또한 달의 운행에 관심을 가지며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있음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달이 향가 작품 속에서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혜성가>의 달은 자연의 달이면서 왕의 상징<sup>2)</sup>, 화랑의 달<sup>3)</sup> 등으로 해석되

2) 양희철, 『삼국유사 향가 연구』(태학사, 1997), p.430.

고 있다.

달의 의미에 대한 논란이 가장 분분한 것은 <원왕생가>이다.

<원왕생가>의 달을 김열규는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보살<sup>4)</sup>로 보았으며 김동욱은 아미타불의 사자<sup>5)</sup>로 보았다. 김학성은 眞覺의 달<sup>6)</sup>로 보았으며, 황폐강은 佛과 달 사이에 공간적 은유관계<sup>7)</sup>로 양희철은 <원왕생가>의 달을 대세지보살의 응현<sup>8)</sup>으로 보았다. <원왕생가>의 달에 대한 논의는 이처럼 다양하지만 크게는 서방정토에의 사자, 불교의 구체적인 보살로 요약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달은 양쪽 이미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작자와 서방세계와의 사이에는 공간적인 거리가 있는데, 이 거리를 좁혀주는 사자로서의 역할을 달은 일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공간적 거리는 작자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내면의 미망, 어두움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달은 이차적으로는 작자의 그러한 미망 상태를 밝혀 위안해주는 상징이기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작자는 서방으로 기울어 가는 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함으로써 내면의 미망을 공간화시켜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방정토 세계 자체가 청정한 법락의 세계임을 생각한다면, 서방으로 가는 밝은 달은 바로 그러한 세계, 아미타불을 상징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에서 달을 돈호법으로 부르고 달에게 자신의 부탁달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작품의 구조가 도천수관음가와 마찬가지로 은근한 위협을 마지막 구에 담고 있는 점은 주술적인 가요의 구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의 달은 바로 서방정토 자체의 상징이며, 작자는 그것을 모르는 채 짐짓 부탁달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지막 구에서 은근한 위협을 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노출시켰다고 볼 수 있다.

3) 김학성, 『항가와 화랑집단』, 『문화와 사회집단』(집문당, 1995), p.28.

4) 김열규, 『한국문학사』(탐구당, 1983), p.214.

5)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을유문화사, 1976), p.100.

6) 김학성, 앞의 논문, p.29.

7) 황폐강, 『항가문학의 이론과 해석』(집문당, 2001), p.352.

8) 양희철, 앞의 책, p.480.

<처용가>의 달은 화랑의 달<sup>9)</sup>, 淨土冀究의 彼岸思想과 아울러 利他的 菩薩行의 喜悅이 반영된 달<sup>10)</sup>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신라시대의 달 신앙은 불교적인 것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풍요와 관련된 고유한 달 신앙과 더불어 신선사상·불교사상을 포괄하고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신라 말 헌강왕 때가 사회적으로 풍요는 했지만 풍속이 어지러웠던 점을 감안할 때 처용이가 무를 하며 다닌 달밤의 달 이미지는, 퇴폐한 세속이 정화되어 신라가 청정하게 영속적이고 풍요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불교적인 사상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화랑에서 보는 삼교통합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처용가에서의 달은 복합적인 이미지를 지닌 화랑의 달로 생각된다.

<원가>의 달을 황폐강이,

상징이라는 점에서 '달 그림자'의 '달'은 王의 실체요, 물 위에 비친 '달 그림자'는 왕의 한낱 허상일 수 있다. 작자의 시선은 달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의 달 '그림자'로 향해 있다. 물 위의 달 그림자는 '넒 물결'에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다. 작자 자신 그렇게 조각난 王의 허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sup>11)</sup>

고 하였듯이 <원가>의 달은 왕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찬기파랑가>의 달을 김학성은 화랑의 달<sup>12)</sup>로 보았으며, 황폐강도 물·은하와 더불어 기랑의 위인을 외양에서, 또 내면에서 재현해 보이는 것<sup>13)</sup>으로 보았다. 이 작품에서의 달은 화랑 이미지의 결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인 한국의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는 해와 더불어 왕의 상징(원가), 화랑의 상징(혜성가, 찬기파랑가), 어둠을 비추어 탈힘으로써 미망을 없애는 불교적 광명체(원왕생가, 청전법륜가), 삼교 통합의 복합 이미지(혜성가, 처용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9) 김학성, 앞의 논문, p.28.

10) 황폐강, 앞의 책, p.577.

11) 황폐강, 위의 책, p.425.

12) 김학성, 앞의 논문, p.28.

13) 황폐강, 앞의 책, p.469.

이처럼 한국인들은 노래 속에 달의 높고, 밝고, 둥글며, 운행해 가는 측면 모두를 형상화시켜 표현하고 있으며, 왕이나 화랑, 부처, 풍요사상·불교·신선사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한 것이다.

한국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은 밝음·풍요적인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단순한 자연물로서 미적인 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3. 일본 『萬葉集』에 나타난 달 이미지

일본의 『萬葉集』을 보면 전체 작품 4516수 중의 약 190여수에 ‘月’이 보인다. 이것을 보면 일본인들도 달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문학적인 소재로 달을 무척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萬葉集』에 나타난 달 이미지를 보면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와는 무척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萬葉集』에 나타난 달 이미지<sup>14)</sup>를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 ① 달빛 아래 놀며 찬미

ももしきの 大宮人の 罷り出て 遊ぶ今夜の 月のさやけさ(7·1076)  
(大宮인이 궁중에서 퇴출하여 노는 오늘날 달은 밝게 빛나네.)

#### ② 아름다운 서경으로서의 달

この夜らは さ夜ふけぬらし 雁鳴の 聞ゆる空ゆ 月立渡る(10·2224)  
(오늘 밤은 이미 늦은 것같네. 기러기 소리 들려오는 하늘을 달은 기  
울어 가네.)

はぎの花 さきのをりをりを見よとかも 月夜の清き 戀まさらくに(10·

14) 中西 進는 일본문학의 달을 『萬葉集』의 아름다운 달과 平安時代の 忌의 달로 크게 나눈 뒤, 平安時代の 忌의 달은 『萬葉集』의 人麻呂의 죽음 이미지의 달의 전통과 연계된 것이라고 하고는 『萬葉歌』의 月の 이미지를 魔性の 힘을 지닌 달, 죽음의 이미지를 지닌 달, 아름다운 달로 나누었다[中西 進, 『萬葉のことばと四季』(萬葉讀本 3, 角川選書165, 1986), p.28]. 또 神野富一은 『風土와 自然』 좌담회에서 『萬葉集』의 달을 相聞의 달, 雜歌의 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風土와 自然』, 『萬葉集を學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1992), p.115].

2228)

(갈대 꽃들이 흐드러져 핀 것을 보라 함인가. 달은 밝게 빛나고 갈대 더욱 그리네)

白露を玉になしたる 九月のありあけの月夜 見れどあかねかも (10・2229)

(하얀 이슬이 구슬처럼 보이는 9월 밝은 달. 아무리 보고 봐도 싫증이 나지 않네.)

③ 에로티시즘의 달

この月のここに来れば 今とかも 妹が出で立ち 待ちつつあるらむ(7・1078)

(이제 달님이 여기까지 왔으니 지금 올까고 그녀가 나와 서서 기다리고 있겠지)

④ 미인의 얼굴, 눈썹

振り放けて 三日月見れば 一目見し人の眉引き 思ほゆるかも(6・994)

(위로 향하여 초생달을 보려면 한번 보았던 그녀의 눈썹모양 생각이 나는구려)

⑤ 부상 이미지로서의 달

世の中は 空しきものと あらむとぞ この照る月は 満かけしける(3・442)

(세상살이는 그저 그렇게 무상한 것이라고 여기 빛나는 달은 차고 이지러지네)

隠り國の 泊瀬の山に 照る月は 満ち缺けしけり 人の常なき(7・1270)

(泊瀬에 있는 산에 비치는 달은 차고 이지러지네 인생무상함이며.)

⑥ 죽음의 이미지로서의 달

あかねさす 日は照らせれど ぬばたまの 夜渡る月の 隠らく惜しも(2・169)

(해님은 비치지만 밤하늘 가는 달이 숨은 것이 아쉽네.)

⑦ 신앙적인 요소

熱田津に 船乗りせむと 月待てば 潮もかなひぬ 今は漕ぎ出でな(1・8)

(熱田津에 배를 내려고 하여 달 기다리면 조수도 밀려왔네. 자아 저어 나가자)

天橋も 長くもがも 高山も 高くも가も 月夜見の持てるをち水 い取り

來て 君に攀りて をちえてしかも(13・3245)

(하늘 사다리 길어 주었으면, 드높은 산도 더 높아 주었으면, 초쿠요미가 가진 젊음 소생수 길어 와서는 그대에게 드러서 젊게 하고 싶어라)

①에서 아름다운 달빛 아래서 놀며 달을 찬미하고 있는 것에 대해 中西 進은, 중국으로부터 달을 감상하며 노는 文雅의 습관이 도입된 것인데 이러한 달

늘이는 달에 대한 공포, 두려움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달에 대한 공포심이 달빛 아래서 떠들며 환락을 즐기게 한 것<sup>15)</sup>이라고 해석하였다.

②의 서경적인 달은 『萬葉集』에 많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 『萬葉集』에 나타난 서경적인 달의 경우, 달 자체를 쳐다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한 경우도 있지만 물 속에 훤히 보이는 예쁜 돌 등과 같은, 지상의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달빛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시선을 위로 하여 달을 볼 때도 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구슬 주렴·창 등을 통하여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상의 달을 감상하는 것이지만 달과 작자 사이에는 구체적인 매개물이 개입되어 있고 작자는 이 매개물을 통하여 달을 간접적으로 바라보되 무척 감각적이고 촉각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미적 감각의 특징으로, 휘영청 밝은 달밤에 시선을 위로 두고 달과 직접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의 경우는 달을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세계로까지 확장하여 교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일본의 달은 즉물적이고 감각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에로티시즘적 성격의 달(相問)

相問歌에 나타나는 달은 남녀가 만나는 기호로 작용하고 있어 흥미롭다. 달은 물리적으로는 그 빛에 의해 남녀가 만나기 쉽도록 도와주지만 한편으로는 만나는 날의 표시이기도 했다. 즉 일본인들은 차고 이지러지는 리듬에 맞추어 달이 이지러졌다가 다시 차기 시작하는 3일째에 만나는 신호로 인식하였으므로 남녀의 사랑이 달의 리듬에 의해 통일되고 있었던 것<sup>16)</sup>이다.

④의 미인의 모습을 형용하는 표현에 사용된 달의 경우는 서경, 상문적인 달과도 중복되는 것이다. 이 경우를 보면 달을 바라볼 때, 달 자체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초승달의 모양에서 미인의 눈썹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직접 달을 쳐다보면서도 지상적인 미인의 모습을 연상함으로써 내면의 시선은 지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달을 지상의 간접적인 사물을 통해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반대로 달을 직접 보더라도 달을 매개로 지상의 미인을 연상하는 것

15) 中西 進, 위의 책, p.32.

16) 中西 進, 「風土と自然」, 『萬葉集を學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1992), p.116.



이다. 그리고 보면 일본의 달과 관련된 미의식의 경우 대상과 작자의 직접적인 교감보다는 매체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투시 감상한다는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⑤의 경우, 『萬葉集』의 달 중에서 무상감을 나타낸 것은 달의 이지러지는 현상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卷第 10의 2225番歌처럼, 달이 번영의 이미지를 나타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보름달의 이미지보다는 이지러지는 마이너스 이미지에 중점을 두고 무상감을 노래한 것이 많음은 특이하다 하겠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본래적인 무상감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일본인들은 불교의 종교적인 무상감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학적인 정서로서의 무상감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sup>17)</sup> 이러한 무상감은 일본인들의 생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경우 신화에 나타난 죽음의 세계는 추악하고 부정하고 금기시되는 것이었던 만큼, 죽음의 세계는 가고 싶지 않은 곳, 한번 죽으면 썩어져 흉악한 모습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생에 대한 확신이 희박하였으므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자신의 존재의 영원한 소멸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무상감을 낳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⑥ 죽음의 이미지로서의 달이다. 『萬葉集』 제2기의 대표적인 歌人인 柿本人麻呂(카키노모토노 히토마로)의 작품에 보이는 달은, 卷第3의 240番歌를 제외하고는 모두 죽음의 이미지로 나타나 주목된다. 柿本人麻呂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달의 죽음 이미지는 平安時代に 들어서면 꺼려지는 달 이미지로 이어가게<sup>18)</sup> 한다. 萬葉歌의 달이 죽음 이미지와 관련되는 것이 많음은 바로 위에서 보았듯이 무상감, 내생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⑦ 일본 달에 나타난 신앙적인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대적인 제의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불노불사의 생명수와 관련된 月讀神(츠코요미노미코토) 신앙이다.

첫째의 경우는 額田王(누카타노오호키미)의 노래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작품

17) 이연숙, 「상대 한일 시가에 반영된 불교사상」, 『비교문학』 21집(1996. 12).

18) 中西 進, 『萬葉のことばと四季』, p.30.

을 달밤의 배놀이라고 보는 설도 있지만, 배를 띄우면서 달밤에 제의를 지내는 노래라는 설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달밤의 제의와 관련된 신앙을 엿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신앙이 이 작품에만 보이고 또한 額田王이 한민족인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신앙이 일본의 전통적인 것인지는 의문이다.

둘째, 불노 불사의 생명수와 관련된 月讀神 신앙의 경우이다.

都倉義孝는 月神은 농경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조수간만의 관계 등으로 물과 강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물을 지배하는 신·航海를 지켜주는 신이라<sup>19)</sup>고 보아 달 신앙을 강조하였다.

月讀神 신앙을 石田英一郎은 神仙思想의 도래 훨씬 이전부터, 琉球를 포함하는 일본열도 남북에 널리 전해지고 있던 달의 '若水'의 사상을 나타낸 것이며, 萬葉時代에는 일본 内地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살아 있었을 것으로 보아 일본 고유한 사상<sup>21)</sup>으로 보았다. 그러나 契沖은 月夜見의 越水(코시미즈)는 甘露를 가리킨다고 하여 이 甘露에 의해 千世萬歲도 넘을 수 있는 뜻으로 보아 불교와 관련<sup>22)</sup>이었다. 그리고 折口信夫는 月讀神은 아마도 山城綴喜郡의 月神으로 귀화인이 제사지낸 것이었을 것이며, 이 變若水 사상은 그 귀화인들이 가지고 온 신앙이 전파된 것일 것<sup>23)</sup>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大久保 正은 月夜見의 '持水'를 고유신앙에 의한 표현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① 萬葉集中에 '月の若水'사상과 결부될 수 있는 노래가 이 한 수밖에 없는 점 ② '月夜見의 持てるをち水'를 부른 長歌가 들어 있는 『萬葉集』 卷第13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식인들의 창작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노래는 귀족사회에 성립해 있었던 서정시의 소박성에 의한 것<sup>24)</sup>이라고 하여 고유신앙과는 분리시켰다. 都倉義孝는 月讀命을 받드는 神社는 특히 일본의 서해안에 많고, 滿月은 달의 呪力

19) 都倉義孝, 「月と月見」, 『萬葉びとの四季』(有精堂, 1996), p.146.

20) 「桃太郎の母」(大久保 正, 『萬葉集の素材と景物』, 『萬葉集の謠相』(明治書院, 1980), p.178에서 再引用.

21) 折口信夫도 『萬葉集辭典』(折口信夫全集11, 中央公論社, 1996, p.447)에서 支那思想에서 온 것인가 하여 도래사상으로 보았으나 그 후에는 일본 고유한 신앙이라고 하였다.

22) 契沖, 『萬葉代匠記』(博信堂, 1906), p.26.

23) 折口信夫, 『萬葉集辭典』, p.447.

24) 大久保 正, 앞의 논문, pp.178~179.

이 가장 충실한 상태이므로 가을에 내년의 풍요를 보증하는 주술적 제의를 행하게 되는데, 그 때 ‘보는’ 주술에 의해 내년의 봄에 대비하였던 것에 유래<sup>25)</sup>하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月讀神을 일본 고유한 달 신앙과 관련짓기도 하고 외래의 영향으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즉 달을 받드는 신사는 京都·洛西·松尾大社 옆에 月讀神社가 있고, 伊勢神宮의 內宮에 月讀宮, 外宮에 月夜宮神社 등이 있으나, 隱岐島の 月讀神社가 전국의 月讀社の 元宮<sup>26)</sup>이다. 이것은 『日本書紀』卷第十五 顯宗天皇 3年 春2月 1日條에

阿閉臣事代가 명을 받아서 任那에 갔다. 이 때 月神이 사람에게 내려서 “나의 조상 高皇產靈은 천지를 만든 공이 있다. 田地를 우리 月神에게 바쳐라. 하라는 대로 바치면 복을 받을 것이다.”고 하였다. 事代는 서울에 돌아가서 상세하게 아뢰었다. 歌荒樵田을 月神에게 바쳤다. 壹岐縣主의 조상인 押見宿禰가 祠에 봉사했다.

고 한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月神은 壹岐의 月讀神社의 신인 것이다. 그런데 이 신사를 주관한 壹岐氏는 후의 松室氏인데, 松室氏는 신라계인 秦氏에서 분파된 것으로<sup>27)</sup> 거북점에 종사한 小氏族으로 보이며 도래제<sup>28)</sup>라 보아지고 있다. 이 사실과, 隱岐島는 彌生時代に 들어서면서부터 金海式 土器, 無文土器, 漢鏡 등과 같은 한국과 중국의 문물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대륙문화의 선진지였음<sup>29)</sup>을 생각한다면 일본의 달 신앙은 한국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일본에서 달과 관련된 고유한 신앙은 미약했음을 알 수 있다.

『萬葉集』에 나타난 달에 신앙적인 요소가 약한 것에 대해 大久保 正은,

25) 都倉義孝, 앞의 논문, p.147.

26) 필자가 1997년 7월 16일 隱岐島를 답사했을 때, 月讀神社 입구에 세워진, 1996년 10월 隱岐「島の科學」研究會가 작성한 설명문을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설명문의 내용이다.

27) 朴鐘鳴, 『京都のなかの朝鮮』(明石書店, 1999), p.12, p.32.

28) 奥野正男, 「九州北部の渡來文化」,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39號, 1978. (朴鐘鳴의 위의 책 p. 34에서 재인용).

29) 中上史行, 『隱岐の風土と歴史』(昭和堂印刷, 1995), pp.42-47.

抒情詩集으로서의 萬葉集에 불리어지고 있는 달이, 원시사회에 있어서의 집단표상으로서 존재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달의 주술이나 신앙과는 거의 완전히 무관계한 자연미의 대상으로 되어버린 배경에는, 人麻呂의 노래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자연관의 추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sup>30)</sup>

고 하였다. 그러나 人麻呂가 고대의 신화적인 시적 표현에서 서정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표현을 그의 작품에서 많이 사용하여 일본 상대시의 새로운 변화를 유도하고는 있지만, 작품에 여전히 신화적 사유가 강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집이 성립된 시기는 『古事記』의 성립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古事記』의 신화를 기록한 安萬侶(야스마로)와도 교류가 많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大久保 正의 설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萬葉集』에 달 신앙 요소가 약하고, 자연미의 대상으로의 달 이미지, 무상감이나 죽음과 같은 마이너스 이미지가 강한 것은 일본인들의 심층적인 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萬葉集』의 경우는 신앙적인 측면과 관련된 달 이미지는 한국과 관련된 작자의 작품 등 한국과 관련된 곳에만 보여 일본의 고유한 달 신앙은 거의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결국 ①의 달빛 아래에서의 놀이는 중국의 文雅의 영향이며, ⑦에 보이는 신앙적 요소는 외래적인 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보면 결국 일본의 『萬葉集』에 나타난 고유한 달 이미지는 달의 이지러지는 이미지와 관련된 무상감, 달이 어두운 밤에 떠오르므로 어두움의 이미지와 관련된 죽음의 이미지, 즉물적이고 에로티시즘적인 성격의 이미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현면에서 보면 일본의 달은 주로 시각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면서도, 달빛이나 모양보다는 하늘을 떠가는 달의 움직임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sup>31)</sup> 보인다.

그리하여 『萬葉集』에는 ‘밤에 떠가는 달’, ‘달이 숨는다’, ‘달이 나온다’, ‘달이 여기까지 뜨다’ 등 움직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달

30) 大久保 正, 앞의 논문, p.175.

31) 大西克禮, 『萬葉集自然感情』(岩波書店, 1970), p.269.

의 공간적인 이동은 동시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간의 경과를 막기 위하여 '지는 달을 막는 관소는 없는 것인가'(7·1077)라고도 하였다. 달의 운행으로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이유로는 달의 아름다운 경치를 계속 보기 위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달의 운행으로 세월이 흐름에서 인생의 무상감을 느낀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사유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달과 관련된 독특한 표현으로 '月船'을 들 수 있다. '月の船'이라는 표현은 『萬葉集』 卷第7의 1068番歌, 卷第10의 2222番歌에, 그리고 『懷風藻』의, 文武天皇의 작품 「詠月一首」에 '月舟'라는 표현이 보인다. 中西 進은 『懷風藻』에 보이는 '月舟'를 「詩意가 月遊에 있음은 틀림이 없으며, 그리고 작자의 뇌리에는 漢武月遊의 고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月舟'는 저 '遊月船' 같은 觀月の 배라고 하여 중국문학의 영향<sup>32)</sup>에 의한 표현으로 보았다. 그러나 『萬葉集』의 '月船'은 별도의 것으로 보았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辰巳正明은 '月船'은 확실히 漢語같이 보이지만 일본식의 漢語일 가능성이 있다<sup>33)</sup>고 보았다. 그리고 文武天皇의 '月舟(月)'나 『萬葉集』의 '月船'은 모두 七夕과 관련되어 誕生된 것이며 이는 '皇子文化 살롱'을 통하여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 것<sup>34)</sup>으로 보았다. 尾崎暢殃도 '月船'이라는 용어가, 조수의 간만과 月齡과의 관계, 밤 동안의 생활에 달빛이 편의를 준 데서 생겨난 것<sup>35)</sup>으로 보았다.

『懷風藻』에 실려 있는 文武天皇의 작품인 「詠月一首」는, 中西 進이 말하듯이 중국의 漢武月遊의 고사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月舟'라는 표현은 『萬葉集』의 '月船'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의 풍토성에 의한 사유를 반영하는 것<sup>36)</sup>이라 하겠다. 즉 海人系의 태양신은, 바다·배와 관계가 깊어 '태양의 배'로

32) 中西 進, 「「月舟」小論」, 『美夫君志』 第2호(1960, 9.), p.68.

33) 辰巳正明, 「文武天皇文化サロンの詩と歌」, 『萬葉集と中國文學 第二』(笠間書院, 1993), p.196.

34) 辰巳正明, 위의 논문, p.209.

35) 尾崎暢殃, 『萬葉歌の形式』(明治書院, 1981), p.300.

36) 섬나라로서 해양생활이 중요하였던 만큼, 바다에 대한 관심이 커서, 3-4세기에 형성된 설화인 칠석이야기에서 당시 중국에서는 견우 직녀가 만나는 수단은 수레였던 것이 7세기경에는 까치다리로 바뀌지만 남방에서는 배로 만나는 것으로 변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각국의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다. 칠석설화에서 견우와 직녀가 일년에 한번씩 만나는 방법도 뱃사공에 의한 것임을 생각하면 일본인들이 하늘에 떠가는 달을 배(月船)로 표현하게 된 것은 칠

나타나고<sup>37)</sup>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도 ‘月船’으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萬葉集』에 나타난 달 이미지를 분석하여 보면 아름다운 서경적 관조의 대상인 것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相關的인 달, 죽음의 이미지와 관련된 달, 인생의 무상감을 나타낸 달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리고 신앙적 성격을 보이는 달 이미지는 극소수이다. 그런데 서경적 관조로서의 달 이미지는 중국문학의 영향이 강하고, 종교적인 성격의 달은 額田王의 노래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인데 額田王이 한인계인 것<sup>38)</sup>, 그리고 隱岐島の 月讀神社가 전국의 月讀社의 元宮인데 이 신사가 한국과 관련이 있음을 생각하면 일본에서 달과 관련된 고유한 신앙은 찾기 어려운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고유한 달 이미지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죽음의 이미지, 相關的 이미지, 무상감이 주된 것이었지 않나 생각된다. 그리고 달빛이나 모양보다는 하늘을 떠가는 달의 움직임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달의 운행으로 세월이 흐름에서 인생의 무상감을 느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일본의 海人系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표현이 ‘月船’임을 보았다.

#### 4. 한일 양국의 달 신앙 차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상대 문학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의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三國遺事』卷第一 第二 紀異 太宗春秋公·卷第一 第二 紀異新羅始祖 赫居世王 등에서는 왕의 덕, 국가와 왕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 <도솔가>에서 해가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도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왕의

---

석설화와 관련하여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37) 松前 健, 「日本古代の太陽信仰と大和國家」, 『東アジアの古代文化』 24號(大和書房, 1980. 夏), pp.6-7.

38) 이연숙, 「『萬葉集』의 韓人系 作家攷」, 『韓國文學論叢』 第22集(1998, 6).

덕을 일월의 덕이라고 하고 있으며 왕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상서롭지 못한 별이 달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나 달은 왕의 생명과 관련되고 있다. 태양과 달 사이에 어떠한 대립도 보이지 않으며 동등하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우리 나라의 태극사상을 발전시켜 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三國遺事』卷第二 第二 紀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의 만월부인(39)·『三國史記』 第十六卷 高句麗本紀 第四 山上王條에서 보름밤에 후사의 출생이 예고되고 있는 것은 달이 생산·풍요·번성의 의미로 사유되고 있었음을 나타내 보이는 예들이라 하겠다.

달은 상하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강한 태극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고기록에 나타난 달은 국가·왕의 상징이기도 하며, 풍요와 번영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라 경주의 月城이 달 모양의 지형에 구축된 것이나 태자가 거처하는 곳, 그 외 왕궁을 중심으로 한 여러 곳의 이름에 달을 사용하고 있고 산 이름에도 달이 많이 사용된 것, 추석과 같은 명절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점등을 보면 한국은 달에 대한 신앙이 무척 강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달은 왕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 나아가서는 신선, 부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일본의 신화에 나타나는 달신의 이미지는 우리 나라와 다름을 알 수 있다.

『日本書紀』神代 上을 보면 달 탄생신화가 보인다. 그 유형은 들로 나누어진 다.

첫째 유형은 일본의 국토생성의 신인 伊奘諾尊(이자나기)와 그의 아내인 伊奘冉尊(이자나미) 두 신의 생전에 해신과 달신이 생겨나는 유형이며, 둘째 유형은 伊奘冉尊이 불의 신을 낳다가 불에 데어 죽자 伊奘諾尊이 아내 伊奘冉尊을

39) 경덕왕은 아들이 없었으므로 왕비를 폐하여 사랑부인으로 봉하고, 후비 만월부인을 맞이하였는데 의중 각간의 딸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월이라는 이름은 바로 달의 생번력을 빌어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염원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나러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伊奘冉尊의 추한 모습을 보고 도망쳐 와서는 강물에 몸을 씻음으로써 부정을 떨치는 과정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일본의 달 사상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은 둘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인용하기로 한다.

- ① 왼쪽 눈을 씻자 태어난 신이 天照大神(아마테라스오호미카미)이며, 오른쪽 눈을 씻자 태어난 신이 月讀尊(츠크요미노미코토)이며, 코를 씻자 태어난 신이 素戔鳴尊이었다. 이자나미가 天照大神에게는 하늘 해를, 月讀尊에게는 青海原의 潮流를, 素戔鳴尊에게는 천하를 다스리게 하였다.<sup>40)</sup>(黃泉國)
- ② 伊奘諾尊이 天照大神은 하늘을, 月夜見尊은 天照大神과 함께 하늘을, 素戔鳴尊은 青海原을 다스리게 하였다. 天照大神은 하늘에 가서, 月夜見尊에게 말하기를 ‘葦原中國에 保食神이 있는데 가서 보고 오라’고 하였다. 月夜見尊이 명을 받아서 保食神에게 가니 保食神이 육지를 보자 입에서 쌀밥이 나오고, 바다를 보자 입에서 크고 작은 생선이 나왔으며, 산을 보자 동물들이 나왔다. 保食神은 이것들을 모두 차려서 月夜見尊에게 대접했는데 月夜見尊은 입에서 나온 더러운 것으로 대접하였다 하여 화를 내며 保食神을 죽였다. 그리고 天照大神에게 보고하자 天照大神은 매우 화를 내며 ‘너는 惡神이다.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고 하여 月夜見尊과 밤낮으로 나누어 교대로 거주하였다.’<sup>41)</sup>(黃泉國, 一書 第十一)

위의 자료를 보면 달의 신은 月弓尊, 月讀尊, 月夜見尊 등으로 각각 표기되고 있다.

①에서 보면 伊奘冉尊의 사후 黃泉國에 갔다온 뒤 부정을 떨기 위한 의례 과

40) 然後 洗左眼 因以生神 號曰 天照大神 復洗右眼 因以生神 號曰月讀尊 復洗鼻 因以生神 號曰 素戔鳴尊 凡三神矣 已而伊奘諾尊 勅任三子曰 天照大神者 可以治高天原也 月讀尊者 可以治滄海原潮之八百重也

41) 一書曰 伊奘諾尊 勅任三子曰 天照大神者 可以御高天之原也 月夜見尊者 可以配日而知天事也 素戔鳴尊者 可以御滄海之原也 既而天照大神 在於天上曰 聞葦原中國有保食神 宜爾月夜見尊 就候之 月夜見尊 受勅而降 已到于保食神許 保食神 乃廻首嚮國 則自口出飯 又嚮海 則鱈廣鱈狹亦自口出 又嚮山 則毛茸毛柔亦自口出 夫品物悉備 貯之百机而饗之 是時 月夜見尊 忿然作色曰 穢哉 鄙矣 寧可以口吐之物 敢養我乎 廻拔劍擊殺 然後 復命 具言其事 時天照大神 怒甚之曰 汝是惡神 不須相見 乃與 月夜見尊 一日一夜 隔離而住 [日本書紀 卷第一 神代上 『日本書紀』(一)]



정에서 해신과 달신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㉔에서 보면 달의 신은 격이 많이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天照大神은 달의 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惡神이라고 한 뒤 낮과 밤으로 나누어 달의 신에게는 밤을 다스리게 하고 있다.<sup>42)</sup> 여기에서 보면 달의 신이 죽인 保食神의 시체에서 여러 가지 곡물이 생겨나고 있음은 고대인들의 달과 농경과의 관계를 엿볼 수<sup>43)</sup> 있게 하여 흥미롭지만 달 지위는 극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달은 태양의 하위로 나타나며 해와 달은 대립적이며 양자 사이에는 단절, 격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달이 태양의 하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의 경우 태극 신앙이 약했다고 보아진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달 신앙이 미약한 것에 대해 井上光貞은 해와 달을 대조적으로 생각한 이야기 작자의 창작이 아닐까<sup>44)</sup>라고 하였으며 大久保 正은

일본 고전신화에 나타나는 달의 신 츠쿠요미노미코토는, 달에 대한 고대

42) 於是 洗左御日時 所成神名 天照大御神 次洗右御日時 所成神名 月讀命 次洗御鼻時 所成神名 建速須佐之男命(須佐二字以音)

右件八十禍津日神以下 速須佐之男命以前 十四柱神者 因滌御身 所生者也 此時伊邪那伎命 大歡喜詔 吾者生生子而 於生終得三貴子 即其御頸珠之玉緒母由良邇(此四字以音 下效此) 取由良邇志而賜天照大御神而詔之 汝命者 所知高天原矣 事依而賜也 故其御頸珠名 謂御倉板舉之神(訓板舉云多那) 次詔月讀命 汝命者 所知夜之食國矣 事依也(訓食云哀須) 次詔建速須佐之男命 汝命者 所知海原矣 事依也(古事記 上卷 (岩波文庫, 1980))

「古事記」에서도 이자나기가 黃泉國에서 도망쳐 나온 뒤에 왼쪽 눈을 셋자 생겨난 신이 天照大神이며, 오른쪽 눈을 셋자 생겨난 신이 月讀命이며 코를 셋을 때 생겨난 신은 建速須佐之男命였다. 이자나기는 목에 걸었던 구슬 목걸이를 天照大神에게 걸여주며 高天原을 맡게 하였다. 月讀命에게는 밤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고 建速須佐之男命에게는 海原을 다스리게 하였다.

43) 그 뒤 天照大神이人を 보내어 保食神을 보고 오게 했는데 가니 정말 죽어 있었다. 그런데 保食神의 머리에서는 牛馬가, 이마에서는 조가, 눈썹에서는 누에가, 눈에서는 稗, 예서는 벼가 음부에서는 보리와 콩 종류가 나 있었다. 天照大神에게 가지고 가자 기뻐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음식물이라 하여 눈발에 심을 종류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是後 天照大神 復遣天熊人往看之 是時 保食神實已死矣 唯有其神之頂 化為牛馬 顛 上生粟 眉上生米 眼中生稗 腹中生稻 陰生麥及大小豆 天熊人悉取持去而奉進之)[日本書紀 卷第一 神代上, 『日本書紀』(一) (岩波文庫, 1995)].

44) 井上光貞, 『日本の歴史1—神話から歴史へ』(中央公論社, 1965), p.47.

신앙을 기초로 하여 성립한 신이 아니라 오호히루메무치 내지는 아마테라스라고 하는 해신의 관념이 성립한 후에, 해와 달을 대조적으로 생각한데서 관념적으로 생겨난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sup>45)</sup>

고 하였다.

松村武雄은 고대에 달의 신과 해신이 함께 숭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고전 신화에서는 해신의 우세와는 대조적으로 달신이 열세인가를 문제로 제기하고는 그 이유를, 발생적으로는 자연신이었던 해의 신이, 天皇氏의 국토통치권의 神授性·合宜性を 민중에게 나타내고 역설할 목적으로, 체계화된 고전신화의 皇祖神이라는 성격이 부여된 人文神으로 轉身, 발전한데 비해, 自然神에 머물러 人文神으로 轉身할 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달의 신은, 고전신화체계의 무대에서 쫓겨난 결과가 되었다<sup>46)</sup>고 하였다.

달의 신은 세력이 약한 까닭에 『萬葉集』의 人麻呂의 작품(2, 167)에서도 해신에 비해 달신은 모습을 잃고 있으며 卷第3의 240番歌에서는 皇子의 가리개로 하기 위하여 그물로 달을 잡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일본의 신화나 문학작품에서 달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창작된 때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창작이라고 보아도 고대인들의 사유가 반영되기 마련인데 달의 신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것은 일본인들의 심층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일본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즉 일본인들의 내생관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지나미 신은 황천을 다녀와서 황천을 아주 부정한 곳으로 생각하고 몸을 씻어 부정을 떨치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인들의 고대의 장례 의식 후의 습속을 말하는 것임을 『삼국지』 위지동이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는 어두움의 세계이며 따라서 어둠이라는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어두운 밤에 뜨는 달은 어두움을 지배하는 것인 만큼 죽음과도 쉽게 결부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月讀神의 위기가 츠크요비노 미코토인데, 井上光貞은 ‘曆을 읽는 것’<sup>47)</sup>에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45) 大久保 正, 앞의 논문, pp.172~173.

46) 『日本神話の研究』第一卷(大久保正, 위의 논문 p.174에서 재인용).

그러나 여러 한자 표기 중에서 月夜見尊이 月·夜·見, 즉 밤에 달을 본다는 의미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山崎正之의 설<sup>48)</sup>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그러나 月夜見尊은 어두움을 다스리는 신이고, 어두움은 죽음을 쉽게 연상하게 하였고, 더더구나 夜見은 黃泉과도 음이 통하므로 달의 신은 黃泉의 세계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게 되고, 죽음의 세계는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죽음의 세계는 가기 싫은 곳이며 따라서 내생에 대한 사유 역시 약할 수밖에 없어 달을 기피하게 하는 인식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또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무상감을 일본인들의 심층에 심어, 달의 총중되고 풍성한 이미지보다는 이지러지고 소멸되는 마이너스 쪽에 비중을 두고 달에서 인생의 무상감이나 죽음을 연상하게 되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 5. 결 론

한국의 향가 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와 일본의 상대시가 문학에 나타난 달 이미지를 비교하고 그 차이가 어떤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인가를 내생관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는데 결론을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가작품에 나타난 달 이미지는 밝게, 높게 뜬, 둥근 만월이 공간적 운행해 가는 역동성에 중점을 두고 작자의 시선은 모두 천상으로 향해 있으며, 달을 바라볼 때에 달과 작자 사이에는 아무런 개입되는 것이 없이, 직접적인 교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밝음·풍요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단순한 자연물로서 미적인 관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으로 전환, 확대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인의 자연관의 특징이 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일본의 『萬葉集』에 나타난 달 이미지는, 달빛 아래에서의 놀이는 중국

47) 井上光貞, 앞의 책, p.46.

48) 山崎正之, 『記紀傳承說話の研究』(高科書店, 1993), p.187.

의 文雅의 영향이며, 신앙적 요소는 외래적인 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하고 보면 결국 일본의 『萬葉集』에 나타난 고유한 달 이미지는 무상감, 죽음, 즉물적이고 에로티시즘적인 성격이 두드러짐을 논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성격을 보이는 달 이미지는 한국계 작자의 작품이나 한국과 관련된 것에 보임으로 보아 일본의 신앙적인 달은 한국의 달 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표현면에서 보면 일본의 달은 주로 시각적인 체험을 중요시하면서도, 달빛이나 모양보다는 하늘을 떠가는 달의 움직임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이것은 달의 운행을 통하여 느끼는 무상감과 더불어 海人系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표현이 '月船'임을 들었다.

셋째, 양국의 달 이미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인은 해와 달을 음양의 상보적인 관계에서 인식하였던 데에 비해 일본인들은 달을 해의 하위로 인식하였고 따라서 해와 달은 대립적이며 양자 사이에는 단절, 격리가 있는 것으로 사유한, 양국인의 세계관, 생사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논하였다. 즉 한국인들은 죽음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데에 비해 일본인들은, 어두움의 세계는 죽음의 세계이며 따라서 어두움을 다스리는 달의 신 月夜見尊은 黃泉과도 음이 통하므로 黃泉의 세계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게 되고, 죽음의 세계는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죽음의 세계는 가기 싫은 곳이며 따라서 내생에 대한 사유 역시 약할 수밖에 없어 달에 대한 신앙적인 측면은 약화되고 무상감, 죽음의 이미지만 강화되었던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age of the Moon in the Ancient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Lee, Yeon-Suk

The moon which lightens all things on earth high in dark nights must be a beautiful object to mankind. The people of agricultural stage got the rhythm of timing from the rising and falling of the moon and adjusted growth of plants to the lunar calendar. The moon symbolized production and prosperity on the one hand, and the downing of the moon gave the feeling of helplessness with its image of death man on the other hand.

It is commonly known that man get universal images of various kind from the moon. However, literature shows that the image of the moon in literal works of various nations contain not only the universal nature of the moon but also more or less characterized moon of specific nation. This fact may be related to each nation's cultural features which in turn had been shifted over along its historical surroundings.

"Moon" appears in 5 works of Silla Hyang-ga among 14 works existing today. Moon appears in about 190 works among 4516 songs in *Manyōshū*, the collection of ancient Japanese poems created in the nearly same period of time as Silla Hyang-ga. The fact that ancient poems both of Korea and Japan took moon into great consideration and made it a source material for the poems indicates that people of ancient time of the both countries had a great respect for the moon.

It is very interesting that, although works in both countries made use of the moon as a source material for the songs, there appear many differences on images of the moon pictured in the works. These differences would be

related to the historical features of each country's culture.

This paper examines differences on the images of moon shown in the Korean and Japanese ancient literature through detailed analysis on the related poems. It also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how these differences stem from, although both countries belong to the same east-Asia cultural area.

This paper purpos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of the moon in Hyang-ga literature and Silla people's thinking of the moon shown in the characteristic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reveals a part of how Korean people think of the universe and some of the main features of their system of thought on the universe.